



전국의 서틀룩 유망주들이 모인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선 똑같은 얼굴, 한마음으로 코트를 누비는 쌍둥이 선수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쌍둥이인 성아영(왼쪽 2번째)·나영(왼쪽 3번째) 자매와 임해빈(왼쪽 끝)·수빈 자매가 활짝 웃고 있다.

## 같은 얼굴·같은 꿈 “너무 잘 알아서 탈”

### 화순배드민턴대회 '쌍둥이 자매' 화제

임수빈·해빈 자매  
“복식조 1년...쌍둥이라 호흡 남달라  
서로 서틀룩 치려다 라켓 잡히기도”

성아영·나영 자매  
“동생과 뛰는건 편하면서도 답답해”  
“언니는 잔소리꾼...반드시 이길 것”

배드민턴은 끈끈한 가족의 인연이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종목이다. 배드민턴 커플이 아이를 낳아 선수로 길러내 '서틀룩 가족'을 이루는가 하면, 종종 형제·자매 선수들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선 외모마저 똑같은 쌍둥이 자매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임수빈·해빈 자매 “너무 잘 알아서 탈”

장곡고 3학년 임수빈(언니)·해빈 자매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해온 아버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라켓을 잡았다. 흔히 쌍둥이는 복식 파트너로 함께 활약할 것 같지만, 이들이 복식조를 이뤄 손발을 맞춘 것은 지난해부터다. 복식 파트너가 되지 1년여밖에 안 지났지만, 피를 나눠서인지 쌍둥이의 호흡은 남달랐다. 임수빈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좋다. 동생과 복식조를 이루면서 배드민턴이 더욱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그러

나 단점도 있었다. 임해빈은 “서로 서틀룩을 보고 반응하는 것까지 비슷하다보니 서틀룩을 서로 치려다 잡히는 경우도 많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다.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며 웃었다.

고3인 만큼 이들의 눈앞에는 진로 문제가 놓여있다. 자매는 실업팀 입단을 희망하고 있다. 임수빈은 “이왕이면 동생과 함께 계속 배드민턴을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같은 실업팀에 입단해 호흡을 맞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 ●성아영·나영 자매 '이교는 언니, 뒤쫓는 동생'

유봉여중 2학년 성아영(언니)·나영 자매는 배드민턴선수 출신인 부모(성수호·백인순)의 권유로 입문했다. 시작은 언니가 빨랐다. 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

과 인연을 맺었고, 1년 뒤 동생이 그 뒤를 따랐다. 1년 차이는 성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성아영은 일찍부터 주니어대표가 될 정도로 손꼽히는 유망주였던 반면 성나영은 최근에야 주니어대표로 발탁됐다. 그래서일까. 언니는 “동생과 뛰는 것이 편하면서도 답답하다”고 말하고, 동생은 “언니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한다. 꼭 언니를 이길 것”이라고 다짐한다. 티격태격하는 여중생 쌍둥이 자매의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유봉여중 김형진 감독은 “(성)아영이가 1년 먼저 배드민턴을 배워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난 1년 새 나영이가 많이 성장했다. 한국 배드민턴의 여자복식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HONMA 혼마골프와 함께하는 양수진의 골프교실

12 퍼터의 로프트와 그에 따른 성능 변화는?

## 퍼터 로프트 클수록 공 회전력 증가

더 멀리 굴릴 수 있어 '느린 그린'에 유리  
헤드 무게도 연관...무거울수록 회전 UP

얼마 전 끝난 브리티시오픈에서 필 미켈슨이 짜릿한 역전승을 차지했죠.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그의 퍼터가 큰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니 미켈슨은 이번 대회 때 로프트 2도짜리의 퍼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퍼터와 로프트, 조금은 생소하죠. 2도짜리 퍼터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혼마골프의 시로 타케다 씨에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퍼터 헤드의 로프트는 3~4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 상태에서 로프트를 높이면 공의 회전력을 높여 더 오랫동안 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느린 그린에서 경기할 때 로프트가 큰 퍼터를 사용하면 같은 힘으로 쳤을 때 더 많이 굴러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퍼터의 로프트를 높이면 그만큼 정확한 타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로프트가 직각(0도)에 가까워질수록 공의 회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으면 공이 통통 튀었다가 구르는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퍼터의 로프트를 3~4도로 만든 것은 이런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미켈슨이 2도짜리 퍼터를 사용한 건 느린 그린에서 공의 회전을 더 빠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네요.

퍼터와 관련해 어떤 규정이 있는 지 함께 살펴볼까요.

USGA(미국골프협회) 규정에 따르면 퍼터 페이스의 로프트에는 제한이 없고 길이와 라이각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길이는



퍼터의 로프트를 높일수록 공의 회전력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정확한 타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퍼터 헤드의 로프트가 3~4도인 것은 타격이 정확하지 못해 공이 통통 튀다가 구르는 실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제공 | 혼마골프

최소 18인치 이상이어야 하죠. 라이각은 최대 78도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터의 라이각은 71~73도가 보통이죠. 참고로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로버트 팔리거스는 어렸을 때 사용했던 28인치(일반 제품은 33~35인치) 짧은 퍼터를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 가지 더, 퍼터의 무게도 중요한 성능 중 하나예요. 헤드의 무게는 스트로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기에 그린의 상태나 퍼팅 스타일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게 좋아요. 퍼터의 헤드가 무거울수록 공의 회전성능을 높일 수 있죠. 따라서 그린의 속도가 느릴 때는 무거운 퍼터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헤드가 가벼운 퍼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정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나 상황에 맞춰 퍼터를 바꾼다는 건 그만큼 정확한 스트로크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또 감각적인 요소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프로 골퍼가 아닌 아마추어 골퍼들이 그린의 상태에 따라 퍼터를 바꿔 사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역시 그린의 상태에 따라 퍼터를 바꿔 사용한 적은 아직 없어요.

양수진 KPGA 프로골퍼



‘내가 제일 잘 나가’ 박인비 1년간 페라리 탄다 가장 잘 나가는 여자골퍼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가장 빠른 차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슈퍼카 ‘페라리’를 만났다. 15주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박인비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페라리 전시장에서 공식 수입사인 ㈜FMK와 1년 간 차량 후원 계약을 맺었다. 박인비가 타게 될 차는 페라리의 FF(Ferrari Four) 모델로 국내 판매가 약 4억6000만원의 초고가 스포츠카다. 아쉽게도 이 차는 국내에서만 탈 수 있다.

사진제공 | FMK

## 김연경 표류...배구협회 “ITC 발급 불가능”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흥국생명·사진)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배구협회 임태희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과 이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경 사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연경은 5일 배구협회에 ITC 발급 및 신분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임시로 김연경의 ITC를 발급한 것은 당시 국제배구연맹(FIVB)의 입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었지만 런던올림픽에서 맹활약한 선수의



해외진출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 발급 후에 김연경에 대한 FIVB의 해석이 나왔다.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고, 해외 진출은 흥국생명과 배구협회와 협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처럼 임시 ITC 발급은 안 된다. FIVB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에 대한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 ■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 3일째

## 성일여고, 여고부 단체전 우승

채유정, 청송여고A 이민지와의 라이벌전 완승



성일여고는 24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3 화순·빅터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3일째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청송여고A를 게임 스코어 3-0으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게임 스코어로는 성일여고의 완승이었지만, 매 게임 접전이 펼쳐졌다. 특히 두 팀의 에이스이자 여고부 정상급 선수로 꼽히는 채유정(성일여고)과 이민지(청송여고A)의 대결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나란히 청소년대표팀에 선발돼 있는 채유정과 이민지는 1경기(단식)부터 만났다. 한치의 양보 없는 스트로크 대결이 이어진 가운데 승자는 채유정이었다. 1세트를 21-17로 따낸 채유정은 2세트에서 듀스 접전 끝에 23-21로 이겨 1경기를 잡아냈다.

둘의 대결은 3경기(복식)에서도 이뤄졌다. 류영서와 짝을 이룬 채유정은 윤민아와 호흡을 맞춘 이민지와 숙명의 대결을 벌였다. 채유정-류영서는 이민지-윤민아에게 1세트를 18-21로 내줬지만 랫심을 발휘해 2세트를 21-19, 3세트를 21-15로 마무리하며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채유정과 이민지는 25일부터 열리는 개인전에도 단체전 때의 같은 파트너와 함께 복식에 출전한다. 중도탈락 없이 승리를 이어간다면, 둘은 27일 예정된 고등부 여자복식 4강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한편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선 진광고가 1학년이 주축이 된 김천생명과학고를 게임 스코어 3-1로 누르고 우승했다.

화순 | 정지욱 기자

### ■ 경기결과 <24일>

●남자 고등부 단식 1회전= 이훈(전주생명과학교) 2-0 남승우(이천제일고), 김충만(군산동고) 2-1 조학진(부산동고), 최성원(밀양고) 2-0 박수훈(웅성고), 최성혁(월봉고) 2-0 박성민(전남사대부고), 임원빈(진광고) 2-0 김영철(광명고), 고석진(매원고) 2-0 홍재희(김천고), 권상혁(밀양고) 2-0 권상혁(이천제일고), 윤영철(전남사대부고) 2-0 김성현(충주공고), 박태환(부산동고) 2-0 조근영(전주생명과학교), 김휘태(당진정보고) 2-0 김민(웅성고), 김현규(군산동고) 2-0 강재민(서문고), 임성현(가조익천고) 2-0 황민(화일고), 조해원(김천생명과학교) 2-0 김민태(전남기술고), 김정대(충주공고) 2-0 최우성(당진정보고), 이동욱(전주생명과학교) 2-0 김민재(이천제일고), 양호재(부산동고) 2-1 최민(안성고), 김민(안성고) 2-0 김민(안성고), 유상현(군산동고) 2-0 조연수(서문고), 이원민(광명고) 2-0 박진성(밀양고), 김한빈(가조익천고) 2-0 최민규(전남기술고), 안원철(충주공고) 2-1 윤영철(전남사대부고), 박문선(전주생명과학교) 2-0 이상진(군산동고), 노주홍(밀양고) 2-0 김용철(이천제일고), 이상현(가조익천고) 2-0 이재원(부산동고), 박병훈(서문고) 2-0 최기선(월봉고), 이준수(매원고) 2-0 김태진(광명고), 이광연(김천생명과학교) 2-0 이종관(웅성고), 이현태(당진정보고) 2-0 김용준(서문고), 송병수(밀양고) 2-0 최태원(군산동고), 이하도(전남사대부고) 2-1 이효수(충주공고), 최홍수(김천생명과학교) 2-1 강형열(군산동고), 한민준(전주생명과학교) 2-0 최정호(이천제일고), 유석주(광명고) 2-0 황현호(월봉고), 홍주희(김천고) 2-1 정용진(가조익천고), 최태원(매원고) 2-0 김동현(부산동고), 박정훈(군산동고) 2-0 이정민(밀양고), 정태민(서문고) 2-0 천재성(전주생명과학교), 김세린(전남사대부고) 2-0 김홍성(이천제일고), 이상현(충주공고) 2-0 구성진(광명고), 김창희(진광고) 2-0 황우연(웅성고), 정세원(가조익천고) 2-0 류승주(전남기술고), 손기종(김천고) 2-0 안상규(매원고), 이호성(전남사대부고) 2-0 노홍호(부산동고), 박주인(서문고) 2-0 이준형(진광고), 김형철(광명고) 2-0 박창우(충주공고), 김주원(김천생명과학교) 2-0 강우일(이천제일고), 소재익(군산동고) 2-0 신동현(웅성고), 권지원(밀양고) 2-1 이병민(월봉고), 김성진(전주생명과학교) 2-0 김민기(전남기술고), 김경환(충주공고) 2-0 김우현(가조익천고), 양재혁(월봉고) 2-1 김경윤(서문고), 박승규(전남사대부고) 2-0 유원준(밀양고), 김우진(웅성고) 2-0 조해원(부산동고), 박정훈(진광고) 2-0 유원규(광명고)

●여자 고등부 단식 1회전= 박은혜(성일여고) 2-0 이은세(화순고), 김주원(밀양여고) 2-0 홍미경(밀양여고), 이분(화순고) 2-0 김윤준(제주여고), 김형철(전주생명과학교) 2-1 박진경(대구제일여고), 배길선(공주여고) 2-0 황나연(이천제일여고), 이다혜(전주성일여고) 2-0 김예슬(당진여고), 김은기(지리안고) 2-0 이서민(대구제일여고), 추소연(우봉여고) 2-0 고혜주(제주여고), 박수민(지리안고) 2-0 정화진(창덕여고), 안지현(공주여고) 2-0 안소혜(성일여고), 김지원(제주여고) 2-0 김민재(밀양여고), 유하연(우봉여고) 2-1 이서연(전주성일여고), 기보현(성지여고) 2-0 이명진(대구제일여고), 최은정(충주여고) 2-0 양윤정(제주여고), 서수혜(공주여고) 2-0 김수선(지리안고), 김혜지(창덕고) 2-0 이슬란(충주여고), 박성영(전주성일여고) 2-0 이정빈(성일여고), 김별(화순고) 2-0 우수원(운양고), 이정혜(전주성일여고) 2-0 박혜진(성일여고), 김연연(창덕여고) 2-0 김은지(청송고), 김은진(공주여고) 2-0 김현정(대구제일여고), 전다비(충주여고) 2-1 이다비(공주여고), 배지원(성일여고) 2-0 김신혜(전주성일여고)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조 최충전= 김남훈(가창중) 2-0 박민재(육원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2조 최충전= 장민현(당진중) 2-0 장기현(천안신방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3조 최충전= 김민준(부산중) 2-1 이휘태(정릉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4조 최충전= 황영호(진광중) 2-0 황재일(웅성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5조 최충전= 왕진(이원중) 2-0 최현재(만주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6조 최충전= 강동훈(전남사대부) 2-1 강선진(당진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7조 최충전= 김지우(군산강중) 2-0 이한원(수원원일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8조 최충전= 김성준(전남사대부) 2-0 김동현(이원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9조 최충전= 김기태(구미부곡중) 2-0 이윤(대전신성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0조 최충전= 박정민(군산금강중) 2-0 황병민(전주신방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1조 최충전= 이원진(이원중) 2-0 최희라(진광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2조 최충전= 유이현(안성중) 2-0 이종범(농성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3조 최충전= 이원빈(진광중) 2-0 변희준(농성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4조 최충전= 이종훈(이원중) 2-0 강신우(수원원일중)  
●남자 중등부 단식 예선전 15조 최충전= 강민우(대구중) 2-1 강수영(당진중)

●여자 중등부 단식 1회전= 김유림(양동중) 2-0 박소혜(범서중), 강유정(순천원향중) 2-0 성민아(유봉여중), 이정현(부곡여중) 2-0 박재래(김천여중), 김민지(전주성일여중) 2-0 권다현(밀양중), 박가은(범서중) 2-0 노은혜(신승중), 김보미(운양성중) 2-0 정지영(광주제중), 정채희(순천원향중) 2-0 박지현(화순제일중), 송현주(정산중) 2-0 박세진(신승중), 구효민(운양성중) 2-0 박미영(광주제중), 김은하(청송여중) 2-0 천은정(포천여중), 이다혜(전주성일여중) 2-0 한슬기(포천여중), 고정화(신승중) 2-0 최조현(양동중), 노선영(명진중) 2-0 이예민(청송여중), 임정민(순제일중) 2-0 조성민(우봉여중), 이윤아(포천여중) 2-0 김부림(부곡여중), 이우지(양동중) 2-0 박수현(광주제중), 김지현(명진중) 2-0 정지현(전주성일여중), 김은수(청송여중) 2-0 지세민(신승중), 박현수(명진중) 2-0 조소정(김천여중), 김승범(제중) 2-1 김윤우(신승중), 김세린(전주성일여중) 2-0 정서진(포천여중), 류서민(광주제중) 2-0 이다민(운양성중), 김다솔(정산중) 2-0 김혜민(운양성중), 김수민(전주성일여중) 2-0 조소연(정광중), 김성민(범서중) 2-0 박수빈(신승중), 배나나(청송여중) 2-0 임지우(순천원향중), 정미림(부곡여중) 2-0 유유라(우봉여중), 백승연(범서중) 2-0 김세린(화순제일중), 서예진(전주성일여중) 2-0 안도희(포천여중)

●여자 고등부 복식 1회전= 김정대, 김형철(충주공고) 2-0 허민재, 윤영철(전남사대부고), 홍재희, 송우표(지리안고) 2-0 강우일, 남승우(전주생명과학교) 2-0 이상진, 소재익(군산동고) 2-0 남성현, 이선미(대구제일여고), 조학현, 최민재(창덕여고) 2-0 김효은, 이원경(화순고), 임태형, 이승태(청송여고) 2-0 손지연, 우수원(운양중학교), 유수진, 김유정(충주여고) 2-0 조수정, 김은제(청송여고), 권나영, 황기태(화순고) 2-0 김수선, 김우현(지리안고), 방지선, 최해원(성지여고) 2-0 김해지, 최승수(창덕고), 김기서, 박수정(지리안고) 2-0 정화진, 김은정(창덕고), 김지영, 조해원(전주성일여고) 2-0 김형영, 이우정(광주제중), 김해정, 박근혜(성지여고) 2-0 고혜주, 이진(제주여고)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 진광고 3-1 김천생명과학고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 성일여고 3-0 청송여고A  
●남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 완주중A 3-1 진광중A  
●여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 광주제중A 3-2 성심여중A